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수산

야노 히데키,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

지난 연말, 조촐하지만 뜻 깊은 시상식이 있었다. 번쩍이는 조명이나 화환이 넘치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시상식장은 내내 진지했고 화기애애했다. '제4회 임종국상' 시상식이었다.

수상자들의 모습도 소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술부문 수상자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준영씨였다. 일본이 이미 청산한 '식민지 법'을 한국은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통렬한 자성을 담아 묵묵히 일제 식민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이어온 문 교수의 결실을 참석자들은 박수로 축하했다. 다만 사회부문 수상자 야노 히데키(矢野秀喜)씨의 모습이 조금은 이채로웠다.

'임종국상'이란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가 친일청산에 앞장섰던 임종국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친일청산에 공로가 깊은 분들에게 주는 상을 일본인이 받고 있다니. 그는 공식 직함이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 사무국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몸 바쳐 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자면 고개를 갸웃거릴 일이 아니었다. 15년이 넘게 그는 한일 과거사의 올곧은 정립을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일본인이었다. 여러 과거사 문제를 위한 모금운동이나 변론 지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피해와 참상을 알리고 그 반성의 길을 열기 위한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일본 우익으로부터 '반일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짧은 머리에 단정한 몸매를 한 수상식장의 그는 투사로서의 이미지와는 먼 한 사람의 예의바른 일본인이었다.

지난 여름이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한일병합 100년과 관련한 담화'를 들은 것은 일본 후쿠오카에서였다.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피폭자 추모모임과 청소년 교류회를 마치고 다음 강연지로 향하는 나에게 한 젊은 일본 언론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오늘 발표된 총리의 담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제병합 100년을 이야기해야 할 일본 총리가 문화재 한두 점의 반환을 언급한 담화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나름대로 한일과거사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나로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랬다. 국치 100년, 강제병합 100년을 맞으며 일본이 '선언적 의미의 반성'이라도 하기를 바랐던 원망(願望)을 뒤로 한 채 일본은 그렇게 2010이라는 중요한 매듭을 아무 매듭도 짓지 못한 채 보냈다.

일본의 전후 처리는, 처음 대두되었던 천황의 전쟁 책임을 군부의 책임으로 넘겨 버리고 이것을 다시 전국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억총참회'로 호도하면서 여기까지 와 버렸다. 그 일본이 근자에 와서는 원폭투하에 대하여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전쟁 중에 '그때 왜 자신들에게 그런 폭탄을 썼느냐'고 사과를 받아내자는 발상, 이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한일과거사에도 작은 진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이 그 하나다. 이 책은 지난 연말로 3850질이 팔려나가면서 3쇄를 찍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가지는 역사와 정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뜨겁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4389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기록된 이 사전의 편찬에는 국민들이 모아 준 성금도 7억원이나 들어 있었다. 인명사전에 조상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는 후손들도 많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진다.

임종국상 시상식장에서 내가 느꼈던 감회의 바닥도 거기에 있었다. 강제병합 100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당당히 일본의 시민운동가 야노씨에게 친일청산에 앞장서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상을 수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노씨는 수상과 함께 받은 상금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국의 다른 시민단체에 그 상금을 희사하면서 아름다운 씨를 뿌렸다. 성숙된 한일관계가 첫걸음을 내딛는 향기로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런 작은 향기와 씨앗들이 모여서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작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정부, 청소년 공부방 예산 지원 재개해야

청소년 공부방이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농어촌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공간 및 쉼터 역할을 해온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 중단은 정부가 입이 닳도록 외치고 있는 '친서민'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때 청소년 공부방 예산 28억99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다. 정부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에 편입시키고 국비 지원금을 아예 없앴다고 한다.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전국 청소년 공부방 5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23곳 가운데 목포와 완도는 폐쇄될 것으로 보이며, 12곳은 위탁단체가 자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방침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곳은 5곳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해온 청소년 공부방은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지역은 당장 내년부터 대부분의 청소년 공부방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공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학습공간이다. 집안에 별도의 공부방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맞벌이 가정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은 더욱 그렇다.

공교육을 보완해 온 공부방의 폐쇄는 많은 청소년의 학습기회를 빼앗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 청소년 복지혜택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청소년 공부방 예산 지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세계경제 대국을 자처하면서 29억 원을 아끼겠다고 농어촌·서민가정 청소년들 가슴을 멍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친서민'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막말싸움' 두 국회의원 과연 제 정신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구제역이 통제불능 상태인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천정부지의 물가로 인해 서민가계는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놀음'에만 빠져 눈에 보이는 위기조차 뒷전이다. 개헌 타령이 그렇고, 과학벨트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도 구 전남도청 별관 및 공항 이전 등 현안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북구 을)과 강기정 의원(북구 갑)이 시정잡배와 같은 '막말싸움'을 벌였다니 한심하고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두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의에서 당직자 인선 및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등 구성을 둘러싸고 고성과 폭언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충돌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물리적 충돌 직전에 동료 의원들이 나서 가까스로 말렸다고 한다.

도대체 제 정신인지, 그야말로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두 의원의 추태는 잘잘못을 떠나 지역과 유권자들에게 욕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모두 북구가 지역구로서,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해도 어려운 판에 감정의 골이 이 정도이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구 도청 별관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부분철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강 의원 역시 자치구간 조정문제에 '반기'를 든 것도 이와 다름이 아니다.

두 의원은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한 달 전 본보가 실시한 광주지역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답변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無等鼓

스펙 무용론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지난해 34만6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학력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오히려 높아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녹색산업과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대졸 취업자들은 어려운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매달린다. 하지만 최근 채용 시장에서 '스펙'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스펙'이란 제품이나 자동차의 크기와 성능을 뜻하는 '사양'(仕樣·Specication)에서 나온 말로 출신학교와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해외 연수 등을 나타낸다. 취업난 심화로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쌓았는가가 채용의 결정 요소인 양 여겨졌다.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스펙이 절대 조건이 아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입사 전형에서 스펙을 가린 채 자기소개서 중심의 평가를 한다. 또 스펙이 화려한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업무에서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채용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대기업 1년차 직장인 1000여명의 이력서와 신입 구직자 13만여명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구직자와 대기업 신입사원의 스펙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또 외국어 점수와 실제 어학실력과는 큰 상관이 없고, 학점 인플레이션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스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24.7%)이 1위, 공인어학성적, 사회경험, 학벌과 학점, 자격증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은 스펙보다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발전(시련 극복)을 이뤄낸 경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 스펙 무용론이 보다 많은 기업들에 번지기를 바란다.

/최재호 정경부차장 lion@

의료 칼럼

나원민

매달 찾아오는 불청객 생리통

여성이라면 일생 중 약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겪어야 하는 게 '생리'이다.

생리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폐경 후 여성들은 홀가분함보다는 우울함에 더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달 생리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생리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막상 그날만 되면 왜 그렇게 민감해지고 짜증이 나는지, 감정조절이 유독 어려워진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생리통으로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통증으로 괴로워한다. 이 정도쯤 되면 생리 전후로 2~3일은 학업과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다.

더욱 크나큰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진통제를 매달 복용하면서 통증을 견디고 있다는 것. 생리통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생리통이 시작될 무렵에는 진통제 1알만 먹어도 참을 만 했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흐르면서 진통제 내성을 키워 이제는 하루에 2알, 3알을 복용해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례가 많다.

진통제 복용으로 생리통을 단순히 덮어두려고 하기보다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몸의 자생력을 키우고 자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생리통은 자궁과 골반에 기질적인 병변 없이 생기는 1차성 생리통(원발성 생리통)과 자궁과 골반에 근원적 병변이 존재하여 이의 영향으로 생기는 2차성 생리통(속발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다.

1차성 생리통은 보통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하며 대개 젊은 여성에게서 발생하고 출산 후에는 완화되기도 한다. 2차성 생리통은 초경이 지난 수년 후 발생하는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골반염 등의 기질적인 질환이 원인이다. 최근에는 20대 여성들에게도 2차성 생리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생리통을 경험하는 경우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생리통 치료는 그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궁의 전반적인 건강을 튼튼히 하는데 치료목적을 가지고 환자에게 맞는 맞춤별 해독 한약과 환부에 직접적인 약효를 주는 한방 좌훈요법, 상태에 따라 단전강화 해독왕뜸과 해독 불부항 및 호르몬 밸런스를 교정하는 해독 아로마 요법을 권한다.

생리통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 못지않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기혈순환을 돕고,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또한 미니스커트, 배꼽티, 차가운 바닥에 그냥 앉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하고 화를 자주 내면 생리통이 심해지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좋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생리가 여성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방치해 두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첨단한방병원 원장〉

기고

이성남

우리 아빠 '볼매'예요

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춘이 설 분위기에 휩쓸려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친 것 같다. 아직은 곳곳에 눈이 쌓여 있지만 겨울 하늘 사이로 뻐끔히 쏟아지는 햇살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듯 제법 따뜻하게만 느껴진다.

겨우내 대지는 매서운 칼바람에 유난히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계절의 절기는 어김없이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 주는 듯 봄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 새 생명을 터트릴 채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제 혹독한 찬 바람이 꽃샘 추위로 바뀌고 땅속으로부터 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움츠려진 마음이 한결 포근해진다.

필자 역시 그동안 힘들고 아쉬웠던 일들은 지난해에 실어 보내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의욕이 솟구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살 더 나이 먹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운 생각은 떨쳐지지 않는다.

설 연휴 동안 형제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옆방에는 대학 졸업반인 딸과 조카들이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애들 방에 들러 잠시 얘기를 나누려고 문을 여는 순간, '볼매'라는 단어가 귓가에 들리면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생전 처음 듣는 말에 '그런 말이 있었나' 싶어 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딸이 '볼매'란 볼수록 매력 있다는 뜻의 인터넷상 용어라며 "우리 아빠 볼매"라고 하며 깔깔 웃는다. 그 뜻을 모를 때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느껴졌으나,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칭찬은 어린 사람에게만 격려가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새삼 사랑스런 딸이 건넨 '볼매'란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집 마당으로 조용히 나와 진정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다시 생각해 본다. 일단 외모는 깔끔해야 하고 몸매가 보기에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난다. 생각의 수준이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마음속 공감을 얻지 못한 자괴적인 반응이었으리라.

옷을 잘 입고 겉모습이 깔끔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어 이웃과 나눔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볼매가 아닌가 싶다. '그래 나도 올해는 마음을 열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보자'라고 다짐해 본다.

지난해 어느 기관장의 송년소감이 기억난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촛불의 심지가 다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이 숙연해지자 다른 회원이 일어나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좀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봅시다'라고 하여 더 큰 박수를 받았다.

세상은 이렇듯 늘 밝음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다. 그 밝음으로 눈을 씻으며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밝은 세상이 보이지만 어두움으로 세상을 보면 밝은 세상이 보일 수 없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마음이 기뻐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다.

이제 새해가 되었다. 누구나 새해 아침이 되면 뭔가 다짐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다 할 다짐을 못한 것 같다. 어느 때부터인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내가 진정한 '볼매가 되기 위한 다짐'이 올 한해 가슴 속 깊이 각인되기를 소망해 본다.

〈광주지방조달청장〉

휴대전화 게임 어린이 시력 떨어져 자제해야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약속이나 한듯이 두 아이의 시력이 동시에 나빠지기 시작했다.

안과에 다니면서 그 이유가 휴대전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속상했다.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근시가 생기고 각종 안과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그동안 집에서는 물론, 학교, 학원을 오가면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는 것이었다. 휴대전화의 작은 액정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게임을 하다보니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혈될 수밖에 없었다. 안과 의사선생님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수정체가 튀어나오고, 그게 심해지면서 근시가 될 뿐더러 정상을 회복하는데 한참이 걸린다고 했다. 작은 액정화면에 시선을 집중한 탓에 눈의 초점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시력이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갈수록 나빠지고 편두통까지 생기고 있다. 자녀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